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및 작업환경 특성 연구 - 성인지적 비교분석으로 통해 본 -

이 관 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12. 4. 접수 / 2013. 9. 4. 채택)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Work Environment of Female Workers

Kwan Hyung Yi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Received December 4, 2012 / Accepted September 4, 2013)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female worker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licies related to accident prevention and workers health protection for female workers. It was analyzed employment status, work environment and injuries and illnesses based on economic activity census results, compensation of industrial injury and the second working condition survey. According to economic activity census result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been steadily increased, whereas 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been decreased since 1970. Industrial accident rate has been declined in male workers but that in female workers has been steadily increased even though male workers were higher accident rate than female workers. It was evaluated that female workers are vulnerable to industrial injuries and illnesses in the aspect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employment status. Also,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female and male workers in occupational exposure patterns, occupational disease and occupational environments were observed. Therefore it was recommended that special care programs for female workers such as a specialized monitoring and management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female worker, sex characteristics in work environment, female workers injury and illness

1. 서론

60-70년대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취업자수는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크게 증가해왔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1990년 이후 여성이 취업자수와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취업자수의 증가 폭이 남녀 모두 비슷하였다. 장래인구추계 보고에 따르면 여성 인구에서 15-29세 청년층 인구의 비중은 2000년 5,165,238명으로 전체 여성 인구의 21.6%를 차지하게 된다. 이후 2010년 4,865,301명(20.0%), 2020년 4,209,767명(17.1%), 2050년 2,446,325명(11.3%)으로 감소되지만, 55세 이상 여성 인구 비중은 2000년 4,787,947명으로 전체 20.0%를 차지하며, 2010년 5,695,686명(23.4%), 2020년 8,338,936명(33.8%)이 되고, 2050년에는 11,975,906명으로 전체 여성인구의 55.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의 노령화 지수는 전체 인구의 노령화 지수보다 더욱더 빨라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

급속한 고령화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은 가

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사노동 수요에 따라 변화하는 생애과정이 여성의 취업 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20~29세 젊은 여성 취업자 수는 2000년 2,187,000명으로 전체 26.5%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1,895,000명인 20.4%로 13.4%가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1,882,000명인 19.4%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는 반대로 45세 이상의 여성 취업자는 그 숫자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며, 특히 50~64세 여성 취업자 수는 2020년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8~64세 취업자에서 50세 이상의 비중은 2000년 19.2%인 1,581,000명에서 2010년에는 26.4%인 2,447,000명으로 높아지고, 2020년에는 33.9%인 3,291,00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³⁾.

성별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 취업자는 기능·기계조작·단순직 종사자가 가장 많고, 여성의 취업자는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별 구성에 따라 각각 살펴보면, 여성 임금근로자가 3%이상 존재하는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보건·개인 서비스업으로 나타나며, 직종은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Corresponding Author: Kwan Hyung Yi, Tel: +82-32-5100-765, E-mail: khyi77@hanmail.net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478, Munemi-ro, Bupyeong-gu, Incheon 403-711, Korea

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기계조작 조립원, 단순노무 근로자 등이다. 특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육아와 가사를 맡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은 출, 퇴근 시간 절약 및 개인의 여가시간을 확보를 위한 유연근무 및 재택근로 등이 많다는 점이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여성은 단순노무 근로자로서 재택 근로하는 경우가 35.6%이고, 도소매업에서는 판매종사자로 독립도급을 하는 경우가 25.7%, 시간제근로인 경우가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숙박업에서 여성은 시간제근로를 하는 경우가 16.5%이고, 금융보험업은 판매종사자로 독립도급을 하는 경우가 27.6%, 교육·보건·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재택근로가 25.3%이다. 재택근로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집행이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에서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5년 8,542명(10.9%)에서 2000년 9,009명(13.1%), 2005년 14,037명(14.3%), 2009년 19,466명(19.9%)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여성근로자의 산업재해자수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하겠다.

여성 인력에 대한 안전권과 건강권 보호는 단순히 여성 근로자 개인이나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넘어서 한 사회의 재생산 인력으로서의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로서의 여성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대책뿐 아니라 모성보호적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근로자의 산재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 이들이 안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의 현황과 정확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차 비교 분석을 통한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 현황, 인구학적 및 직업적 산업재해율 현황, 그리고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특성 등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자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실시한 제2차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재가공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 현황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의 변화 및 산업 구조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얻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970년에 39.3%에서 2010년에는 10.1% 증가한 49.4%로 나타났으나,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는 1970년에 77.9%에서 2010년에는 4.9% 감소한 72.9%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인구 중 여성의 구성비도 1970년에 35.9% 이후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 2010년에는 41.4%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employed persons by gender.

(unit: Thousand Person, %)

Variable	Gender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Male	6,447	9,019	11,030	12,435	13,000	13,854	14,492
	Female	3,615	5,412	7,509	8,410	9,069	9,835	10,256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Male	77.9	76.4	74.0	76.4	74.2	74.4	73.0
	Female	39.3	42.8	47.0	48.4	48.6	50.0	49.4
Employed persons	Male	6,104	8,462	10,709	12,153	12,353	13,330	13,915
	Female	3,513	5,222	7,376	8,256	8,707	9,526	9,914
Female/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		35.9	37.5	40.5	40.3	41.1	41.5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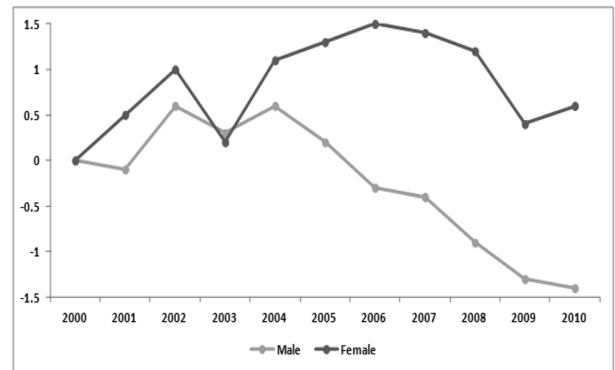


Fig. 1. Changing trend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e since 2000(standard 2000).

2000년 이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 모양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2003년 기점으로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폭이 더욱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수 증가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Fig. 1).

연령별로는 40대 및 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눈에 띄며, 2003년 이후에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20대 여성의 경우는 200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70-90년대와는 달리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도 여성근로자들의 비율은 도·소매업이 16.5%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업이 12.6%, 제조업 12.5%, 교육 서비스업이 12.2% 순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및 제조업 취업자는 매년 감소가 뚜렷했고,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업의 규모에서는 1999년 여성 전체 취업자의 69.1%와 임금근로자의 48.5%가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2004년에는 여성 전체 취업자의 44.4%와 임금근로자의 46.0%로 낮아졌다. 이것은 점차 여성 임금근로자가 안정된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직업별 종사상 지위, 취

업자 추이에서 전문직 여성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고, 임금근로자에서 특히 상용직 여성종사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여성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성별 산업재해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취업자의 산업재해율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V형자로 1990년 0.043%에서 2000년 0.23%로 감소하다가 2005년 및 2010년 재해율이 다시 0.30% 및 0.3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에서는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재해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의 재해율이 2004년 0.37%에서 2010년 0.56%로 크게 증가하였다(Table 2).

직업별로 산업재해율을 살펴보면 여성근로자 재해율은 관리자,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이며, 두드러진 특징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재해율이 2004년 0.02에서 2010년 0.35로 약 11배 증가하였다. 남성취업자는 단순노무 종사자, 관리자, 서비스종사자 순으로 재해율이 높았고, 단순노무 종사자 재해율이 2004년 1.4에서 2010년에는 3배 높은 3.35로 크게 증가하였다.

성별 산업별 재해율 특징은 여성의 재해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이며, 그 다음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순이었다. 그리고 기업의 종사자 규모에서 남성 및 여성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재해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남성취업자의 재해율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근로자의 재해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은 광업에서 재해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4년 21.8%에서 2010년 7.54%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 다음 재해율이 높은 산업은 하수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종사자, 건설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 발생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여성근로자의 경우 가장 높은 업무상 사고 유형은 넘어짐 재해로 전체의 7,789명

(44.0%), 그 다음이 끼임 재해가 3,051명(17.2%)으로 넘어짐과 끼임 재해가 전체의 60%를 차지하였다. 여성의 업무상 질병으로 가장 높은 것은 직업성 요통(53.6%)과 근골격계질환(29.4%)으로 전체 업무상 질병의 83%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이 나타나는 업종은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과 식료품 제조업이며, 종사자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특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년 제2차 취업자 근로환경조사는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취업자 근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였으며 표본수는 10,018명으로 남성 취업자가 5,849명(58.4%), 여성 취업자가 4,169명(41.6%)이다. 남성과 여성 취업자 모두 40-49세 연령대에서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Table 3).

고용형태를 보면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여성근로자가 남성취업자 보다 높았으며, 직종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전문직 직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직종 비율에서는 남성은 장치·기계조립 및 기능종사자 직종에서, 여성근로자는 판매 및 사무서비스 직종에서 차지하는 취업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산업별 남성취업자의 경우 제조산업에서 여성근로자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가장 높은 취업 비율을 보였다. 근속기간이 5년 이상, 주당 근무시간이 45시간 이상, 주당 7일 근무한 비율을 보면 남성취업자가 여성근로자와 비교해 근무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1개월 중에 토요일 근무 일수를 보면 여성근로자는 평균 3.6일이고, 남성취업자는 평균 3.3일이었고, 일요일 근무 일수는 여성근로자가 평균 3.2일, 남성취업자는 평균 2.8일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 일수는 여성근로자가 남성취업자보다 많았다. 1일

Table 2. Distribution of injured person and injury rate by gender.

Year	Male			Female		
	Employed persons	Injured person	Injury rate(%)	Employed persons	Injured person	Injury rate(%)
1990	4,465,309	119,747 (90.1)	2.68	3,077,443	13,146 (9.9)	0.43
1995	4,696,768	69,462 (89.1)	1.48	3,196,959	8,542 (10.9)	0.27
2000	5,563,866	59,967 (86.9)	1.08	3,931,691	9,009 (13.1)	0.23
2005	6,414,332	71,374 (83.6)	1.11	4,644,861	14,037 (16.4)	0.30
2010	8,292,069	79,198 (80.3)	0.96	5,906,679	19,447 (19.70)	0.33

[Sour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 2010

Table 3. Distribution of employed persons by gender and age surveyed for 10,018 persons by OSHRI in 2010.

Variable		Gender		Total	
		Male	Female		
Age	15yr-19yr	Employed persons	67(46.9)	76(53.1)	143(100)
		Gender %	1.1	1.8	1.4
20yr-29yr	Employed persons	692(48.1)	746(51.9)	1,438(100.0)	
	Gender %	11.8%	17.9%	14.4%	
30yr-39yr	Employed persons	1,553(63.6)	888(36.4)	2,441(100.0)	
	Gender %	26.6%	21.3%	24.4%	
40yr-49yr	Employed persons	1,630(59.2)	1,124(40.8)	2,754(100.0)	
	Gender %	27.9%	27.0%	27.5%	
50yr-59yr	Employed persons	1,213(59.9)	811(40.1)	2,024(100.0)	
	Gender %	20.7%	19.5%	20.2%	
more than 60yr	Employed persons	694(57.0)	524(43.0)	1,218(100.)	
	Gender %	11.9%	12.6%	12.2%	
Total		Employed persons	5,849(58.4)	4,169(41.6)	10,018(100.0)
		Gender %	100.0%	100.0%	100.0%

10시간 이상 근무한 일수와 밤 근무(저녁 10시~새벽 5시) 일수는 남성취업자가 여성근로자보다 많았다. 또한 교대근무를 하는 비율도 남성취업자가 여성근로자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는 여성근로자보다 남성취업자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화학물질, 세균 바이러스가 근무시간의 1/4 시간 이상인 노출시간 비율을 보면, 여성근로자가 일하는 장소보다 남성취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높았다. 일과 관련해서 피로하거나 허리·팔·다리 등에 통증을 주는 작업자세, 계속 서 있는 작업자세, 반복적인 손, 팔 동작의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근로자에서 노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빠른 작업속도와 엄격한 마감시간을 지켜야 하는 작업이 근무시간의 1/4 시간 이상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여성근로자보다 남성취업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작업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남성취업자의 경우 생산목표와 상사의 지시,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라고 응답하였다. 근무환경 조사에서는 남성취업자와 여성근로자 모두 동료들이 도와주고 지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근로자가 남성 취업자보다 ‘업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5점 만점)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값=4.929, $p=0.000$). 근무 시 ‘본인의 감정을 숨긴다’(5점 만점)에서는 남성 및 여성근로자 비슷하게 3.2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값=1.965, $p=0.49$).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에 관한 결과를 보면, 업무(일)가 본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한 업무인가” 질문에서 남성취업자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22.8%이고, 여성근로자는 남성취업자 보다 훨씬 낮은 7.7%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의 하는 업무(일)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가에서 남성취업자는 ‘그렇다’고 한 경우 23.2%이며, 여성근로자는 16.5%로 응답했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업무(일)로 인한 건강상태(5점 만점)에서 여성근로자는 3.69이며, 남성취업자는 3.79로 여성근로자가 스스로가 남성취업자 보다 건강상태가 덜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성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값=6.276, $p=0.000$). 그리고 업무와 관련되어 여성근로자 보다 남성취업자가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는 청력, 어깨·목·팔 등 근육통이고, 여성근로자가 남성취업자 보다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는 하지 근육통, 두통과 눈의 피로, 우울 또는 불안장애, 전신피로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건강문제로 회사를 결근한 일수에서 남성취업자는 14.5일, 여성근로자는 남성취업자 보다 적은 11.76일로 나타났으며,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값=1.358, $p=0.175$).

4. 고찰

여성의 산업재해율은 건설업, 광업 등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해 재해율은 낮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산업재해율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분야가 산업안

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형 근로형태, 그리고 감정을 상품으로 하며, 반복적인 작업이 많은 도소매, 음식 및 판매 서비스업종에서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속한 업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 그리고 성차적 사회심리적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과 함께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직업군 내에 있다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은 신체적 요구가 많은 업무를 처리하며, 여성의 경우는 정교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고 보고되었으며, 남성의 경우 소음, 진동, 분진 등 노출시간 비율이 여성보다 높아 심뇌혈관질환, 암, 청각 손상 등을 호소하지만 여성의 경우엔 피로하거나, 허리·팔·다리에 통증을 주는 작업자세, 계속 서있는 작업자세, 반복적인 손, 팔 동작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노출시간 비율이 높아 근골격계질환이나 피곤,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및 정신적 구조적 특성 등에 따른 직업적 노출을 바탕으로 가정과 직장 양립으로 인한 갈등 심화,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환경 요인(인간공학적, 물리적/화학적 요인, 감정 및 사회심리적 요인 등), 산업재해 발생유형, 직장에서의 성차별 등 다양한 요소와 요인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수 증가는 여성이 주도하고 있다. 4-5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눈에 띄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도 기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한 상태에서 적절한 보호를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 여성의 산업재해 발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취업자의 재해율은 2000년 0.23%에서 2010년 0.33%로 증가하였고 직업별로는 관리자,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순으로, 산업별로는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에서 재해율이 높다. 업무상 사고는 넘어짐과 끼임 재해가 60%를 차지하고, 업무상 질병은 직업성 요통 및 근골격계질환이 83%를 차지한다.

여성취업자의 근로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고용형태에서 비정규직(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율이 남성취업자보다 높았으며, 직종에 있어서는 전문직, 판매 및 서비스 직종 순으로 취업 비율이 높았다.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한 평균 일수는 여성취업자가 남성취업자보다 많았지만, 1일에 10시간 이상 근무한 일수, 밤 근무한 일수 및 교대근무를 하는 비율은 남성취업자가 높아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는 여성취업자 보다 남성취업자가 더 높다.

일과 관련해서 피로하거나 허리·팔·다리 등에 통증을 주는 작업자세, 계속 서있는 작업자세, 반복적인 손, 팔 동작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취업자에서 노출 비율이 높아 남성 취업자보다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는 하지 근육통, 두통과 눈의 피로, 우울 또는 불안장애, 전신피로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 고찰, 성별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산업재해 및 재해유형, 근로환경 특성, 분석을 토대로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와 취업자 증가는 여성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여성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많은 보고가 있지만 정부는 우선적으로 ILO와 EU의 모성보호의 권고와 기준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일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본인과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여 사회적으로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원하는 시기에 직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출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정책이 새로운 형태의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맞게 꾸준히 개발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stimated Future Population”, 2006.
- 2) J. H. Keum, “Present Condition and Task of Abar market in Female Workers”, Korea Labor Institute, 2002.
- 3)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Supporting Methods of Safety and Health Policy in Female Worker”, 2002.
- 4) H. G. Kim, H. J. Hyun and Y. G. Kim, “A Study of Foreigner Workers Deal with Hazardous Chemical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05.
- 5)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
- 6)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Nationl Gender Sensitive Date Base”, http://gsis.kwdi.re.kr/gsis/kr/dbwoTree.-html?root_id=338_10&expand_id=338_10_A